



1 이두호 BNK 썸 농구단 구단주가 연고 지역 여자 농구부에 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2 변연하 BNK 썸 농구단 코치

BNK 썸,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하다

성장을 위한 첫 번째 단추 '변연하 코치의 영입'

BNK 썸 농구단은 조기 종료로 마친 2019~2020시즌을 뒤로하고 발 빠르게 다음 시즌을 준비했다. 그 첫 번째 단추로 코치진을 보강했다.

한국 여자프로농구의 특점기계이자, 부산 출신의 국가대표 레전드 포워드 변연하(전 부산MBC 해설위원) 코치가 그 주인공이다. 유명 주 감독은 최윤아, 양지희 등 포지션별 코치들의 역할 분담과 포워드 선수들의 기량 증가를 위해 변연하 코치를 선택했다.

'잇츠 썸 타임 We are BNK'

지난해 10월 14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무관중 홈 개막전이 처음으로 열린 날이다.

BNK 썸 농구단에서는 시즌 개막 한 달 전부터 홍보와 접수를 시작해 실내 스포츠 역사상 처음으로 '드라이브 인 썸 바스켓볼'이라는 특별한 개막식을 준비하며 팬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BNK센터 앞 주차장은 126대의 차량으로 가득 메워졌고, 팬들은 주차장 앞 대형 LED 전광판을 통해 중계되는 경기를 각자의 차 안에서 관전하고, 라디오를 통해 경기내용을 듣고 즐길 수 있었다.

개막식은 선수단 소개와 이두호 구단주의 개회 선언 등 야외무대에서 진행됐다.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진행됨에 따라 박수와 함성 대신 차량의 비상 깜빡이를 이용한 이색적 응원도 선보였다. BNK 썸 농구단은 우승 후보 KB스타즈와의 홈 개막전을 82-79 승리로 장식했다.

여자농구의 미래 문지영을 선발하다.

BNK 썸 농구단은 지난해 11월, 2020 WKBL 신인선수 선발회에서 전체 1순위 선발권을 획득했다. 고교 최대어 센터인 문지영(숙명여고, 183cm 센터) 선수를 선발했다. 리그에서 높이의 열세에 있던 BNK 썸으로서는 싱글 센터인 진안의 백업과 높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부산 여자농구 저변 확대와 선수 육성 위한 과감한 지원

지난해 11월 23일 홈 경기 하프타임을 통해 연고 지역 여자 농구부 4개교(동주여고, 마산여고, 울산 화봉고, 부산대)에 각각 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또 WKBL 최초로 여자 고교 농구선수 23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2천300만원의 장학금을 후원하는 전달식을 했다.

이두호 BNK 썸 농구단 구단주는 "팬들이 보내주는 따뜻한 사랑을 지역의 여자농구 유망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이번 전달식을 준비했다"며 "BNK 썸 농구단도 멋진 경기로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팬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무관중 경기가 열리고 있지만, BNK 썸 여자프로농구단은 매 경기 접전을 거듭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역동적이고 활기찬 경기를 보여주기 위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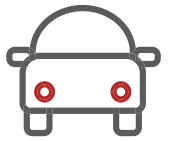
언제나 어디서나 내 손안의 금융 BNK 캐피탈

1 MIN

1분안에
대출한도조회



내 신용등급
무료확인



내 차량
최신 시세조회



BNK캐피탈을 검색해주세요.



바로가기▶